

초·중학교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종단 분석*

곽수란¹, 송미옥^{2*}

¹고구려대학교 교수, ²동강대학교 조교수

A Longitudinal Analysis of Parents' School Satisfac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Soo-Ran Kwak¹, Mi-Ok Song^{2*}

¹Professor, Koguryeo College, ²Assistant Professor, Dongk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ELS)2013의 1차, 3차, 5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를 종단분석 하였다. 분석대상은 KELS2013 초5패널 학부모가 1차, 3차, 5차에 탈락하지 않고 응답한 학부모이며, 표본은 잠재성장모형에 투입된 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4,227명이 선정되었다. 분석결과 부모학력과 교육지원 그리고 학업성취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정적효과를 나타내지만, 부모의 교육관과 교육비는 학교만족도에 부적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확인함으로써 교육전문기관으로서 학교의 본래 기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교육지원, 교육비, 학업성취, 학교만족도, 잠재성장모형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parents' school satisfaction longitudinally using data from the 1st, 3rd, and 5th wave data of the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KELS)2013.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parents who responded without dropping out in the first, third and fifth panel of the KELS2013, and 4,227 cases that had no missing values in the variables were selected for the sample to input for analysis of the latent growth modeling(LGM).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parents' education, educational suppor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arents' school satisfaction. But the parents' educational view and education cost have a negative effect on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important information to help enhance the primary function of the school.

Key Words : Educational support, Educational cost, Academic achievement, School Satisfaction, Latent growth modeling(LGM)

1. 서론

학교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교육을 대행하는 기관이며, 한국 사회는 학교를 통해 얻게 되는 교육성파가 사회적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

녀의 교육성파를 기대하며 학교교육을 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교육성파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성파는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결국 학교를 통해 확인받기 때문에 학부모는 학교를 통해 자녀의 교육성파가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불가

*Corresponding Author : Mii-Ok Song(smo314@hanmail.net)

*이 연구는 제13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2019년 11월 29일)으로 토론자와 심사자의 논평과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Received August 27,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Revised September 24,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피하게 학교 밖에서 추가적인 교육비를 지출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을 위해 자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배려와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취를 기대하는 학부모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교육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하였으며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문제의 실마리를 학교교육의 역할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사회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학교교육을 위한 단초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한국교육중단연구2005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등학교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분석한 Rhee & Kwak(2013)[1]의 후속연구라 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연구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횡단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종단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도 종단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충분히 만족한다면 자녀의 교육적 지원을 사교육 등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학교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더 나아가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어떠한가?”라는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하여 “학부모의 학력 및 교육관에 따라 학교만족도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녀의 교육 지원(학업 및 정서지원, 교육비)의 변화에 따라 학교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지막으로 “자녀의 학업성취 변화가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와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종단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비등한 상황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확인은 효과적인 초중학교 교육 방향에 지침이 되는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이론적 배경

2.1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일반적으로 만족도는 기대감 충족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각 개인이 가진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느냐가 만족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자녀의 교육성취 기대

에 대한 충족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부모가 자녀를 의뢰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 충족은 자녀 교육활동에 대한 기대와 연계되기 때문에 학교교육 목적달성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학교가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학교기능 제고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려는 논의는 범문화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특히 학교선택이 활성화된 문화권에서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자녀학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2-5]. 따라서 교육선진국에서는 신뢰로운 학교만족도확인을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6-8]. 국내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조사를 위한 지표 또는 조사도구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9-11].

아동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자녀 교육을 의뢰한 학교가 만족스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학부모의 학교만족도가 어떤 요인과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2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관련요인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교육을 의뢰한 학교가 자녀의 교육성취에 기여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만족도나 학업성취 연구는 양적으로 축적되어 있으나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는 학교를 학업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공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에서 학교교육에 기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업성적으로 상징되는 학업성취인 것도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연구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도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마저도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12,13]는 아동청소년기 자녀와 그들을 지원하는 학부모들에게 학업성취인 학업성적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업성취가 교육선발과 사회적 선발과 직결되는 한국 사회에서 학업성취는 학교만족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가 학교만족도와 직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는 학교만족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1]. 이러한 맥락

에서 학업성취 관련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축적되어 있으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특히 초·중학교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자녀를 의뢰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학교교육의 결과인 학업성취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자녀를 교육 전문기관인 학교에 의뢰하고 그에 따른 지원과 배려를 하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자녀의 교육 또는 학업성취 수준과 직결되어 있다[14-17]. 따라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학생 자녀의 학업성취와 동일선상에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18-21]. 더 나아가 부모의 교육 지원 즉, 학업활동을 위한 교육비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나 학교참여 그리고 학교 선택에 따른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확인되고 있다[22-25].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와 관련된 요인이라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학업성취 결정요인 중에서 학부모 관련 요인은 학교만족도와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Park(2011)[25]은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와 중학생 사교육 수요와의 관계 분석에서 학교의 특성과 상관없이 학부모의 학교만족도가 상승하면 사교육 수요는 감소하는 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즉,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든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족 요인이 나타날 때 사교육을 선택하는 경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Byun & Kim(2008)[2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적 관여가 달라지며 특히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학부모의 특성→학교 참여 또는 교육비를 포함한 교육지원→학교만족도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업성취가 자녀 학업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는 학부모의 지원과 배경에 따라 학교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 지원 정도 그리고 지원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수준과의 인과관계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하여 제공한 한국교육중단연구(KELS) 2013[26]의 초5패널 1차, 3차, 5차 학부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자녀가 1차 초5, 3차 중1, 5차 중3 진급할 때까지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 사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학생 자녀의 학업성취를 포함하여 잠재성장모형에 투입되는 측정변수에 결측치가 없는 사례를 최종 분석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투입된 사례는 4,227명이다. Table 1은 잠재성장모형 분석에 투입된 데이터의 상관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Correlation matrix (n=4227)

| VAR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1) | 1.00 | - | | | | | | | | | | | | |
| (2) | .04* | 1.00 | | | | | | | | | | | | |
| (3) | .25** | .16** | 1.00 | | | | | | | | | | | |
| (4) | .24** | .09** | .58** | 1.00 | | | | | | | | | | |
| (5) | .23** | .07** | .51** | .60** | 1.00 | | | | | | | | | |
| (6) | .28** | .09** | .24** | .20** | .18** | 1.00 | | | | | | | | |
| (7) | .24** | .07** | .22** | .21** | .19** | .57** | 1.00 | | | | | | | |
| (8) | .29** | .08** | .22** | .22** | .22** | .52** | .62** | 1.00 | | | | | | |
| (9) | .33** | .09** | .23** | .20** | .17** | .26** | .24** | .29** | 1.00 | | | | | |
| (10) | .36** | .08** | .20** | .21** | .17** | .26** | .25** | .29** | .73** | 1.00 | | | | |
| (11) | .31** | .04** | .15** | .16** | .12** | .18** | .17** | .23** | .59** | .72** | 1.00 | | | |
| (12) | .11** | .00 | .24** | .19** | .16** | .03** | .06** | .04** | .12** | .10** | .08** | 1.00 | | |
| (13) | .02 | -.01 | .12** | .25** | .15** | .02 | .02 | .00 | .06** | .09** | .08** | .38** | 1.00 | |
| (14) | .03 | -.02 | .11** | .15** | .26** | .02 | .00 | -.01 | .05** | .06** | .08** | .35** | .46** | 1.00 |

*p<.05, **p<.01
 (1)Parents' Education, (2)Educational View, (3)Educational Support(E5), (4)Educational Support(M1), (5)Educational Support(M3), (6)Educational Cost(E5), (7)Educational Cost(M1), (8)Educational Cost(M3), (9)Academic Achievement(E5), (10)Academic Achievement(M1), (11)Academic Achievement(M3), (12)Parents' School Satisfaction(E5), (13)Parents' School Satisfaction(M1), (14)Parents' School Satisfaction(M3)

3.2 분석변수

이 연구는 초5~중3까지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중단 검증하는 것이다. 학교기관에 자녀 교육을 의뢰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가 부모학력, 교육관 교육지원, 교육비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으며, 독립변수의 변화에 학교만족도는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종 종속변수인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전반만족수준과 학교의 학업 및 인적성 교육활동, 교육환경, 평가의 공정성, 교사-학부모 관계 만족도를 포함하여 총 8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클수록 학부모의 학교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문항 신뢰도는 초5=.922, 중1=.925 그리고 중3=.934이다.

학부모의 학력과 교육관은 상대적으로 고착된 특성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비교적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외생변수로 투입하였다. 부모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을 교육연수로 환산하고 평균을 계산하여 투입하였으며, 한부모인 경우에는 한부모의 교육연수를 사용하였다.

부모 교육관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부모 교육관은 공부 중심 교육활동을 지향하는 부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수가 클수록 공부를 중요시하는 교육관을 나타낸다. 부모의 교육관 5문항의 신뢰도는 .823이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을 위해 지원하려는 수준을 나타내는 요인이다. 교육지원은 학업지원 7문항과 정서지원 2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클수록 학부모의 교육지원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신뢰도는 초5=.841, 중1=.853 그리고 중3=.851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지원의 또 다른 요인인 교육비는 자녀의 교육에 지출되는 월평균 비용이며, 여기에는 사교육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비는 로그로 환산하여 잠재성장모형에 투입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월평균 교육비가 많은 것이다.

학부모의 교육지원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업성취는 초5, 중1, 중3 시점의 국어, 영어, 수학 기초능력검사 점수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클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이며, 신뢰도는 초5, 중1, 중3 각각 .800, .854, .862이다.

교육지원, 교육비, 학업성취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초5, 중1, 중3 시점에서 측정된 값을 투입한 것이다.

3.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초중학교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종단분석 한 것이다. “학부모의 특성과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따라 학교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더 나아가 “학교만족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Fig. 1은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분석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방법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종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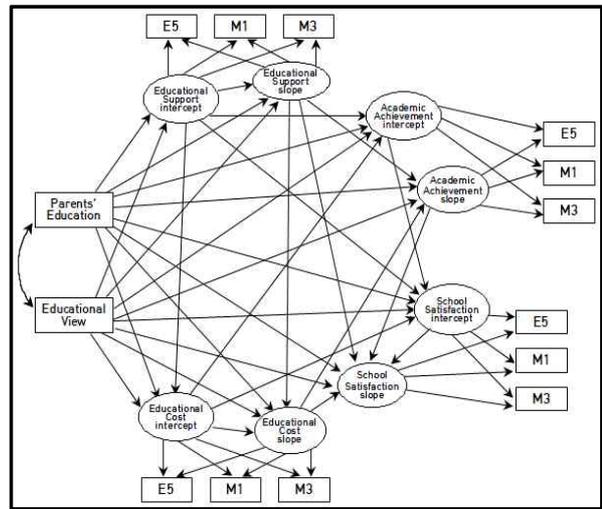


Fig. 1. LGM of Parents' School Satisfaction

(Latent Growth Modeling, LGM)이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방법인 잠재성장모형은 일반적으로 초기측정 수준에 근거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특성을 개인 내, 개인 간 궤적을 추적하여 알아낸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양태에 다른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종단분석의 이점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단자료인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부모의 학력과 교육관을 외생변수로 하여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지원, 교육비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의 변화가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와 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LISREL을 사용하였다.

3.4 자료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인 잠재성장모형 추정방법은 ML이며, 기본가정은 다중변수 정상성이라 할 수 있다. 측정변수의 다중변수 정상성은 LISREL PRELIS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 하였다. 다중변수 정상성 분석 결과, 다중변수 편포도 및 첨도 그리고 편포도와 첨도를 동시에 검증한 χ^2 검증 통계량이 크게 추정되며 이 값이 관찰될 확률은 .000로 남학생 및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정한 14개 측정변수의 다중변수 분포는 정상분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Table 2. Test of multivariate normality

| Model | Skewness | | | Kurtosis | | | Skewness & Kurtosis | |
|----------------------|----------|-------|-----|----------|-------|-----|---------------------|-----|
| | Value | Z | p | Value | Z | p | χ^2 | p |
| Full model (N=4,227) | 2.79 | 26.07 | .00 | 246.57 | 25.75 | .00 | 1342.98 | .00 |

Table 3. Univariate summary statistics

| Variables | Mini mum | Maxi mum | Mean | St.D | Skewness | Kurtosis | |
|------------------------------|----------|----------|--------|--------|----------|----------|-------|
| Parents' Education | 6.00 | 21.00 | 14.17 | 1.95 | 0.22 | -0.25 | |
| Educational View | 1.00 | 5.00 | 2.54 | 0.67 | 0.20 | -0.01 | |
| Educational Support | E5 | 1.00 | 5.00 | 3.55 | 0.54 | -0.11 | 0.43 |
| | M1 | 1.00 | 5.00 | 3.48 | 0.56 | -0.10 | 0.54 |
| | M3 | 1.00 | 5.00 | 3.44 | 0.56 | -0.02 | 0.55 |
| Educational Cost | E5 | 0.00 | 6.40 | 3.52 | 0.72 | -0.71 | 2.40 |
| | M1 | 0.00 | 6.29 | 3.66 | 0.74 | -1.06 | 2.78 |
| | M3 | 0.00 | 6.40 | 3.76 | 0.72 | -0.97 | 2.47 |
| Academic Achievement | E5 | 93.67 | 263.33 | 203.55 | 29.77 | -0.49 | -0.14 |
| | M1 | 122.33 | 298.33 | 223.58 | 39.54 | -0.26 | -0.76 |
| | M3 | 165.00 | 343.67 | 259.48 | 46.25 | -0.10 | -1.05 |
| Parents' School Satisfaction | E5 | 1.00 | 5.00 | 3.56 | 0.55 | 0.20 | 0.29 |
| | M1 | 1.00 | 5.00 | 3.54 | 0.55 | -0.05 | 0.44 |
| | M3 | 1.00 | 5.00 | 3.52 | 0.58 | -0.07 | 0.65 |

반면 Table 3은 개별 측정변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으로, 개별 변수의 정상성을 확인할 수 있는 편포도와 첨도가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단일변수 분포가 정상분포이면 다중변수 분포도 정상분포일 가능성이 높다. 다중변수 분포가 정상분포이면 각각의 단일변수 분포는 언제나 정상분포이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언제나 성립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단일변수 분포가 비정상성을 띠면 다중변수 분포도 비정상성을 가질 개연성이 농후하며 [27], 이에 본 연구는 다중변수 정상성을 개별 측정변수의 정상성 충족으로 대체하고 ML방법으로 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4.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중단분석 결과

Table 4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잠재성장모형 적합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정량적 적합도 평가지수인 χ^2 은 353.24(df=50, p=.00)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성적 적합도 지수인 GFI=.99, TLI=.98 그리고 RMR=.020 모두 매우 적합한 모형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 교육관, 교육지원, 교육비,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간 중단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잠재성장모형은 정성적 지표에 근거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결론 내리고 개별추정치를 해석하고자 한다.

Table 5는 초5, 중1, 중3 세 시점의 잠재성장모형 측정모형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잠재성장모형 초기값(intercept)은 1, 변화값(slope)은 차수에 따라 1, 2로

고정시켜 추정하였다. 따라서 추정치가 1과 2로 제시되기 때문에 그 설명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추정치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측정변수를 대신한 잠재변수 중심의 구조모형으로 제시하였다.

Table 4. LGM goodness of fit statistics

| LGM | χ^2 | df | NC | GFI | TLI | RMR |
|----------------------|----------|----|------|-----|-----|------|
| Full model (n=4,227) | 353.24 | 50 | 7.06 | .99 | .98 | .020 |

Table 5. LGM test of measurement model

| Path | intercept | | slope | |
|------------------------------|-----------|----------|----------|---|
| | | | | |
| Educational Support | E5 | .44*** | - | - |
| | M1 | .44*** | .17*** | |
| | M3 | .44*** | .34*** | |
| Educational Cost | E5 | .56*** | - | |
| | M1 | .56*** | .19*** | |
| | M3 | .56*** | .39*** | |
| Academic Achievement | E5 | 28.57*** | - | |
| | M1 | 28.57*** | 14.87*** | |
| | M3 | 28.57*** | 29.74*** | |
| Parents' School Satisfaction | E5 | .36*** | - | |
| | M1 | .36*** | .16*** | |
| | M3 | .36*** | .32*** |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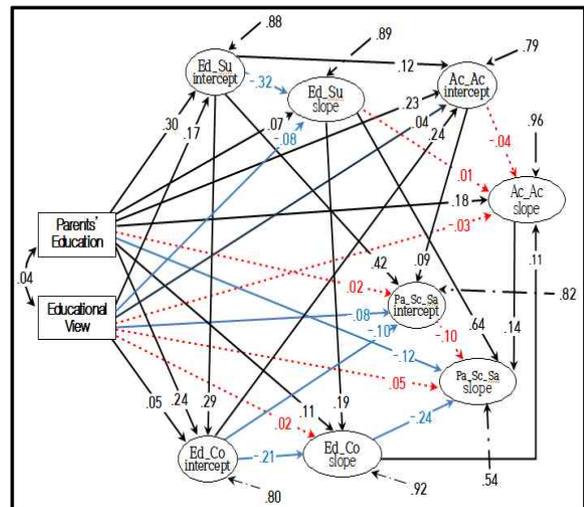


Fig 2. Standardized solution of LGM

Fig 2는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해석의 편의를 위해 intercept는 초기값, slope는 변화값으로

기술하였다. Table 6은 잠재성장모형 직접효과 추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며, Table 7은 간접효과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외생변수인 부모학력의 효과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학력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초기값($\beta=.30, t=17.32$)과 변화값($\beta=.07, t=2.77$), 교육비 초기값($\beta=.25, t=13.30$)과 변화값($\beta=.11, t=3.39$) 그리고 학업성취 초기값($\beta=.23, t=14.18$)과 변화값($\beta=.18, t=7.98$)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활동 지원이 크고, 더 나아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육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인 교육비 지출 또한 부모학력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학력과 교육활동에 대한 학업, 정서,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연계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18-19]. 부모학력은 자녀의 학업성취 초기값 뿐 만 아니라 학년과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정적으로 향상되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지원, 교육비,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학력의 효과와 달리 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부모학력이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값($\beta=.02, t=.92$)과 변화값($\beta=-.12, t=-3.67$)이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모학력은 학교만족도 초기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으며, 학년과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만족도는 부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부모학력은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인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 다만 부모학력이 교육지원, 교육비, 학업성취를 매개하면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초기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beta=.11, t=9.54$)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만족도 변화값에 대한 매개효과($\beta=-.02, t=-.6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Table 7). 부모 학력이 학교만족도 초기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맥락은 추후 구체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모 교육관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관이 교육지원 초기값과 변화값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교육관→초기값($\beta=.17, t=10.02$)과 변화값($\beta=-.08, t=-3.35$)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이 다르다. 부모의 교육관은 교과 Table 6. LGM result of direct effect

| | Path | B | β | S.E | t |
|--------------------------------|---------------------------------|-------|---------|------|----------|
| Parents' Education | →Educational Support intercept | .07 | .30 | .00 | 17.32*** |
| | →Educational Support slope | .01 | .07 | .00 | 2.77** |
| | →Educational Cost Intercept | .07 | .25 | .01 | 13.30*** |
| | →Educational Cost slope | .01 | .11 | .00 | 3.39*** |
| | →Academic Achievement intercept | 3.40 | .23 | .24 | 14.18*** |
| | →Academic Achievement slope | 1.36 | .18 | .17 | 7.98*** |
| | →School Satisfaction intercept | .00 | .02 | .00 | .92 |
| | →School Satisfaction slope | -.01 | -.12 | .00 | -3.67*** |
| Educational View | →Educational Support intercept | .12 | .17 | .01 | 10.02*** |
| | →Educational Support slope | -.02 | -.08 | .01 | -3.35*** |
| | →Educational Cost intercept | .04 | .05 | .02 | 2.75** |
| | →Educational Cost slope | .01 | .02 | .01 | .77 |
| | →Academic Achievement intercept | 1.85 | .04 | .64 | 2.87** |
| | →Academic Achievement slope | -.60 | -.03 | .43 | -1.39 |
| | →School Satisfaction intercept | -.04 | -.08 | .01 | -3.44*** |
| | →School Satisfaction slope | .01 | .05 | .01 | 1.41 |
| Educational Support intercept | →Educational Support slope | -.12 | -.32 | .02 | -7.82*** |
| | →Educational Cost intercept | .37 | .29 | .03 | 13.98*** |
| | →Academic Achievement intercept | 7.53 | .12 | 1.23 | 6.10*** |
| | →School Satisfaction Intercept | .34 | .42 | .02 | 15.81*** |
| Educational Support slope | →Educational Cost slope | .21 | .19 | .05 | 4.60*** |
| | →Academic Achievement slope | .90 | .01 | 2.80 | .32 |
| | →School Satisfaction slope | .61 | .64 | .06 | 9.57*** |
| Educational Cost intercept | →Educational Cost slope | -.07 | -.21 | .02 | -4.12*** |
| | →Academic Achievement intercept | 12.32 | .24 | 1.01 | 12.23*** |
| | →School Satisfaction intercept | -.07 | -.10 | .02 | -4.05*** |
| Educational Cost slope | →Academic Achievement slope | 8.28 | .11 | 2.76 | 3.00** |
| | →School Satisfaction slope | -.20 | -.24 | .05 | -4.32*** |
| Academic Achievement intercept | →Academic Achievement slope | -.20 | -.04 | .02 | -1.04 |
| | →School Satisfaction intercept | .00 | .09 | .00 | 4.06*** |
| Academic Achievement slope | →School Satisfaction slope | .00 | .14 | .00 | 4.10*** |
| School Satisfaction intercept | →School Satisfaction slope | -.04 | -.10 | .03 | -1.52 |

* $p < .05$, ** $p < .01$, *** $p < .001$

중심의 공부활동을 강조하는 특성으로, 부모가 다른 어떤 것보다 공부가 우선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자

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중심 공부활동을 강조하는 교육관을 가진 학부모의 교육지원은 자녀의 학년과 학교급이 높아지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지원은 학업활동과 정서 지원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부모가 교과중심의 공부활동을 강조할수록 학업이나 정서적 지원이 상반되는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관과 학교만족도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추후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교육관은 교과중심의 공부를 강조하는 특성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교과위주의 공부 즉, 학교 성적을 강조하는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지면 오히려 교육지원을 줄이고 자녀에게 교과위주의 공부를 더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모의 교육관이 교육비 지출과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교육관→교육비 초기값($\beta=.07, t=2.75$), 교육관→학업성취 초기값($\beta=.07, t=2.75$)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교육관→교육비 변화값($\beta=.02, t=.77$), 교육관→학업성취 변화값($\beta=-.03, t=-1.39$)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교과중심 학업활동을 강조하는 교육관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학년이나 학교급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비 지출을 늘리거나 학업성취가 상승하는 변화를 유인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모의 교육관이 자녀의 학업활동을 위한 지원이나(교육지원, 교육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교육관이 학업, 정서, 경제적 지원의 지속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관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학력의 효과와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즉, 부모 교육관이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초기값($\beta=-.08, t=-3.44$)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부적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변화값($\beta=.05, t=1.4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교과중심의 공부활동을 중시하면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며, 교과중심 공부활동의 강조는 학교만족도 변화 또한 유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을 기대하는 학부모에

게 학교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관이 교육지원, 교육비, 학업성취를 매개하면 학교만족도 초기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beta=.06, t=8.12$)를 나타내며, 학교만족도 변화값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효과($\beta=-.10, t=-4.35$)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학업성취 중심의 공부활동을 강조하는 부모인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교육비를 더 지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의 학업성취가 향상된다면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교육관의 효과라기보다는 학업성취의 효과가 더 큰 비중이 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더불어 이것은 교과중심 공부활동을 강조하는 부모는 학교를 통해 충족되지 않는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학교교육 이외 영역에서 교육비를 지출할 가능성 또한 시사한다[25].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교육지원의 효과를 살펴보면, 교육지원 초기값은 교육비, 학업성취 그리고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교육지원 초기값→교육지원 변화값($\beta=-.32, t=-7.82$), 교육지원 초기값→교육비 초기값($\beta=.29, t=13.98$), 교육지원 초기값→학업성취 초기값($\beta=.12, t=6.10$), 교육지원 초기값→학교만족도 초기값($\beta=.42, t=15.81$)이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교육지원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활동을 위해 공부분위기 조성, 숙제확인, 공부 방법 조언, 성적 관리, 진로진학 정보수집, 일정관리, 학부모 모임 참여 그리고 격려, 기분 맞춰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지원 초기값은 교육비 지출과 학업성취 향상에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많이 할수록 부모의 학교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지원 변화값은 교육비 변화값($\beta=.19, t=4.60$), 학교만족도 변화값($\beta=.64, t=9.57$)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지원의 변화는 교육비와 학교만족도 변화를 유인하는 요인인 것이다. 다만 교육지원 변화값이 학업성취 변화값($\beta=.01, t=.32$)에 영향을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교육비와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지원의 변화 또한 교육비와 학교만족도 변화를 유인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의 변화가 학업성취 변화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기대하고 교

육지원을 더 많이 하더라도 자녀의 학업성취는 부모의 증가된 지원만큼 상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 변화값은 교육비 변화값을 매개하면 학업성취 변화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01, t=2.50$)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비가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초기값 및 변화값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인 반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7. LGM result of indirect effect

| Path | | B | β | S.E | t |
|-------------------------------|---------------------------------|------|---------|-----|----------|
| Parents' Education | →Educational Support slope | -.01 | -.10 | .00 | -7.13*** |
| | →Educational Cost Intercept | .03 | .09 | .00 | 10.88*** |
| | →Educational Cost slope | -.01 | -.09 | .00 | -4.14*** |
| | →Academic Achievement intercept | 1.73 | .11 | .13 | 13.26*** |
| | →Academic Achievement slope | -.07 | -.04 | .10 | -.77 |
| | →School Satisfaction intercept | .02 | .11 | .00 | 9.54*** |
| | →School Satisfaction slope | .00 | -.02 | .00 | -.64 |
| Educational View | →Educational Support slope | -.01 | -.05 | .00 | -6.16*** |
| | →Educational Cost intercept | .04 | .04 | .01 | 8.14*** |
| | →Educational Cost slope | -.01 | -.04 | .00 | -4.96*** |
| | →Academic Achievement intercept | 1.92 | .04 | .35 | 7.33*** |
| | →Academic Achievement slope | -.16 | -.01 | .17 | -1.27 |
| | →School Satisfaction intercept | .04 | .06 | .01 | 8.12*** |
| | →School Satisfaction slope | -.02 | -.10 | .01 | -4.35*** |
| Educational Support intercept | →Educational Cost slope | -.05 | -.11 | .01 | -6.05*** |
| | →Academic Achievement intercept | 4.58 | .06 | .48 | 9.52*** |
| | →Academic Achievement slope | -.77 | -.02 | .37 | -2.06* |
| | →School Satisfaction intercept | -.01 | -.01 | .01 | -1.70 |
| | →School Satisfaction slope | -.08 | -.22 | .01 | -7.16*** |
| Educational Support slope | →Academic Achievement slope | 1.78 | .01 | .71 | 2.50* |
| | →School Satisfaction slope | -.04 | -.05 | .02 | -2.47* |
| Educational Cost intercept | →Academic Achievement slope | -.83 | -.05 | .30 | -2.74** |
| | →School Satisfaction intercept | .01 | .02 | .00 | 3.84*** |
| | →School Satisfaction slope | .02 | .07 | .00 | 3.63*** |
| Educational Cost | →School Satisfaction slope | .01 | .02 | .01 | 2.21* |

| slope | | | | | |
|--------------------------------|----------------------------|-----|------|-----|-------|
| Academic Achievement intercept | →School Satisfaction slope | .00 | -.02 | .00 | -1.74 |

* $p<.05$, ** $p<.01$, ***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부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비 초기값→학업성취 초기값($\beta=.24, t=12.23$), 교육비 변화값→은 학업성취 변화값($\beta=.11, t=3.00$)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교육비 초기값→학교만족도 초기값($\beta=-.10, t=-4.05$), 교육비 변화값→학교만족도 변화값($\beta=-.24, t=-4.32$)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교육비는 학업성취에 정적효과를 나타내지만 학교만족도에는 부적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교육비 지출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비 지출이 많아질수록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낮아지는 결과인 것이다. 결국,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성적이 향상되기를 기대하지만 학교가 그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것이다. 학부모가 추가적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결국 학교의 학업성취 향상에 대한 기대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학교만족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가 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추가된 교육비 지출만큼 자녀의 학업성취가 향상되지 못한다면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는 교육비와 학교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부모의 학교만족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것은 다음 결과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즉, 학업성취 초기값→학교만족도 초기값($\beta=.09, t=4.06$)과 학업성취 변화값→학교만족도 변화값($\beta=.14, t=4.10$)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더 나아가 학업성취가 높아지면 학교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와 자녀의 학업성취는 매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인과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만족은 자녀의 교육성취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1, 16].

부모학력, 교육관 그리고 자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업, 정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가 학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단적 인과관계로 확인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데 유의하여 참조할 사항은 방해오차(ζ)이다. 최종 종속변인인 학교만족도 초기값의 방해오차는 .82이며, 학교만족도 변화값의 방해오차는 .54이다. 이는 부모 학력과 교육관 그리고 교육지원, 교육비, 학업성취의 초기값과 변화값이 학교만족도 초기값과 변화값을 각각 18%, 46%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만족도 초기값보다는 변화값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학교만족도를 설명하는 독립요인, 즉 부모의 학력과 교육관, 교육지원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시점에서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부모의 학교만족도를 부모학력, 교육관, 교육비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와의 인과관계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초5부터 중3까지 중단자료를 사용하여 초기값과 변화값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학업활동과 학교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를 갖는다. 또한 교과중심 공부활동을 강조하는 부모의 교육관은 자녀의 학업활동을 위한 교육지원, 교육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적에도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관이 교육지원, 교육비, 학업성취 변화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과중심 공부활동을 강조하는 교육관을 가진 부모일수록 학교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만족도 변화 또한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지원은 교육비와 학업성취 그리고 학교만족도에 직접 또는 간접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은 교육비 지출이나, 학업성취 향상, 그리고 학교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비는 학업성취에 정적효과, 학교만족도에는 부적효과를 나타내는 매우 명확한 추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부모 학력, 교육지원과 학업성취가 정적효과를 나타내며, 부모 교육관과 교육비는 부적영향을 나타내는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목적인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는 자녀의 학업성취가 결

정적 요인인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녀의 교육을 의뢰한 학부모가 기대한 만큼의 교육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학교만족도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학교만족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생활만족이나 학교적응을 확인하고 있다[12, 13].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학교가 교육목적 달성이라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전환기 발달과정에 있다. 이는 학생 자신 뿐 아니라 학부모가 그 시기의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 방향과 방법이 달라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의 학교교육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횡단적 측면에서 확인하는 것은 매우 한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부모-자녀의 학교교육과 관련된 요인 간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추정하는 중단분석은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구체적인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단분석 방법인 잠재성장모형의 특성 상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여 동시에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된 학업성취 그리고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지원과 교육비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학부모의 학교만족도 확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으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와 연계된 중요요인을 찾아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아동·청소년기 교육활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청소년기 중학교 3학년까지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중단분석이다. 패널데이터 수집은 차수가 길어질수록 응답에서 탈락한 대상이 많아지고 탈락자의 데이터는 결측치가 된다. 구조방정식모형인 잠재성장모형 분석에서는 결측치가 있을 경우 분석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높아 결측치를 모두 제거하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분석에 투입되는 데이터는 KELS 2013의 1차, 3차, 5차까지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투입되는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례수가 제외되었다. KELS 2013은 비율표집을 통해 전집을 잘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데이터가 제외됨으로써 일정부분 편이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K. J. Rhee & S. R. Kwak. (2013). A study to schooling satisfaction of the secondary school parents: A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3(4), 155-175.
- [2] B. A. Friedman, P. E. Bobrowski & J. Geraci. (2006). Parents' school satisfaction: ethnic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44(5), 471-486.
DOI : 10.1108/JDC.2006.44.5.471
- [3] B. A. Friedman, P. E. Bobrowski & D. Markow. (2007). Predictors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s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45(3), 278-288.
DOI : 10.1108/JDC.2007.45.3.278
- [4] S. Gibbons. & O. Silva. (2011). School quality, child wellbeing and parents' satisfac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30(2), 312-331.
DOI : 10.1016/JDC.2011.30.2.312
- [5] C. Hausman & E. Goldring. (2000). Parent involvement, influence, and satisfaction in magnet schools: do reasons for choice matter?. *The Urban Review*, 32(2), 105-121.
DOI : 10.1023/JDC.2000.32.2.105
- [6] C. Halderson. (1987). *Examiner's Manual. School Climate Survey: Student Satisfaction Survey, Teacher Satisfaction Survey, Parent Satisfaction Survey*. Form A. Sampler Kit. Reston, Va : NASSP. ED300462.
- [7] N. Schmitt & B. Lohr. (1986). *Student Satisfaction Survey, Teacher satisfaction Survey, Parent Satisfaction Survey*. Reston, Va: NASSP.
- [8] Wylie, Cathy(1995). *Parent Satisfaction Survey*. 1995/96. Evaluation Report. ED405544.
- [9] Y. B. Kim, H. G. Ryu, J. Y. Namgung, M. J. Jeon, I. H. Kim & J. A. Jeon.(2004).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Survey Tools*. 2004-5, Seoul: KEDI.
- [10] Y. B. Kim, H. G. Ryu & J. Y. Namgung, (2005). *Developmen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Index and Indicator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CR 2005-14. Seoul: KEDI.
- [11] Y. B. Kim, H. G. Ryu, J. Y. Namgung, I. H. Kim & M. J. Jeon. (2007). Development of school education satisfaction survey instruments for students and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0(3), 1-27.
- [12] S. R. Kwak. (2006).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1), 1-26.
- [13] S. R. Kwak. (2007).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7(1), 1-21.
- [14] S. Mitra. (2009). Student support services in open schooling: a case study of students' needs and satisfaction in India. *Open Learning*, 24(3), 255-265.
DOI : 10.1080/JDC.2009.24.3.255
- [15] J. J. Randolph, M. Kangas & H. Ruokamo. (2009). The preliminary development of the children's overall satisfaction with schooling scale (COSSS), *Child Indicators Research*, 2(1), 79-93.
DOI : 10.1007/JDC.2009.2.1.79
- [16] J. J. Randolph, M. Kangas & H. Ruokamo. (2010). Predictors of Dutch and Finnish children's satisfaction with school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2), 1389-4978.
- [17] K. D. Tuck. (1995). *Parent Satisfaction and Information: A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Washington, DC: District of Columbia Puvlic Schools.
- [18] Y. J. Choi & J. H. Shim. (2018). A mixed methods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hild's academic achievement, parent involvement, and school satisfaction in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6(3), 89-121.
- [19] H. S. Shin & B. C. Min. (2017). Does parent involvement mediate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 Culture Research*, 23(6), 5-35.
- [20] J. S. Lee & S A. Lim. (2016).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Autonomous Motivation: Group Differences according to Changes i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4(3), 97-119.
- [21] S. Y. Byun, & K. K. Kim. (2008).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 achievement in South Korea: Focusing on differential effects by family background.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8(1), 39-66.
- [22] B. B. Baek, Y. J. Hwang, & Y. K. Sung. (2012). The effects of high school choice on the levels of school and assignment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2(4), 141-170.
- [23] B. R. Ryu, J. W. Hwang, K. A. Kim & H. N. Lim. (2019).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school parents' participation on school satisfaction, school reliability, and community consciousnes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9(2), 169-193.
- [24] H. S. Seo & I. S. Choi. (2012). Parental engagement according to school level and parent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3), 243-263.
- [25] C. S. Park. (2011). Public education and demand for private tutoring for the child.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17(1), 73-119.

- [26]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KEDI.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SurveyDBFormNewAll.do>.
- [27] K. J. Rhee.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 -Causality, Statistical Analysis and Inference*. Seoul: Kookmin University Press.

곽 수 란(Soo-Ran Kwak)

[정회원]



- 1992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3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고구려대학교 유아교육과
- 관심분야: 학교효과, 학업성취

· E-Mail : ksrpeda@naver.com

송 미 옥(Mi-Ok Song)

[정회원]



- 2003년 2월 :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1년 2월 :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육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유아교육과
- 관심분야 : 교육콘텐츠,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E-Mail : smo314@hanmail.net